

● 한우협회, 연말연시 맞아 ● 한우나눔 활동 전개



전국한우협회가 연말연시를 맞아 한우나눔 활동을 펼치며, 소외계층에 대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한우협회는 2017년 12월 20일 롯데리아와 함께 홀트아동복지회에 한우버거 1,000개를 기부하고, 다음날 21일에는 협회 회의실에서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대한적십자사, 서울시농아인협회 등 3개 기관을 초청, 한우고기 및 가공품 전달식을 가져 총 5,000여만원 상당의 나눔활동을 펼쳤다.

이번 나눔활동은 한우자조금 한우나눔 사업의 일환으로 한우고기 및 가공품을 전달함으로써 연말연시를 맞아 훈훈한 정을 나누는 계기가 됐다.

김홍길 한우협회장은 “한우산업이 소비자의 사랑으로 성장해 온 만큼 받은 사랑을 연말연시에 소외될 수 있는 취약계층을 찾아 정을 나누게 됐다”며 “2018년에도 나눔활동을 통해 항상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한우산업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 한우자조금, 연구기능 활성화 ●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 이바지

최근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민경천) 교육조사부는 2017년 한해 동안 한우산업에 발생한 현안 및 이슈에 대응하여 수행한 총 9건의 자체 연구자료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된 연구자료는 부정청탁금지법, 소도체 등급제 개편, 한·미FTA 재협상 등 한우산업이 직면한 현안에 대한 연구와 일본 쇠고기산업 현황 분석, 소규모 한우농가 정책지원방안 등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를 위주로 수행됐다.

수행한 연구 중에서도, 한우산업이 당면한 현안으로 소도체 등급제 개편에 대한 검토 결과와 한·미FTA 재협상에 따른 시나리오 분석 결과는 향후 정부의 정책 방향설정에 있어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우산업의 규모화가 촉진되면서 소규모 농가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축산 선진국의 지원정책 및 농가 설문 결과 등을 분석해 소규모농가 및 번식농가 경영안정화 지원에 대한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모색했다.

이 밖에도 일본 쇠고기산업 현황 분석, 국가별 축종별 현황 등 한우산업관련 유관기관에서 직접 활용 가능한 자료 또한 발표하여 한우산업의 지식탱크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 한돈협회, 농가지원부 신설
● 농가중심 가치창출...조직개편



대한한돈협회와 한돈자조금사무국은 1월 8일 국민과 함께 하는 한돈산업, 한돈농가와 함께 하는 한돈산업, 한돈농가 중심가치를 창출에 중점을 둔 조직 개편을 실시했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한돈협회는 2부5팀 체제로 한돈자조금사무국은 4부 체제로 개편되어 한돈농가 중심의 핵심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하태식 대한한돈회장 겸 한돈자조금관리위원장은 “올해 창립 40주년을 맞아 조직을 안정화하고 조직 전문성과 한돈 마케팅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하고, “무엇보다 한돈농가 중심의 관점에서 협회와 자조금이 수행하는 모든 사업들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국민과 함께 하는 한돈산업을 만들기 위한 조직개편과 인사이동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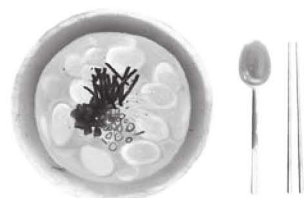
이번 개편의 핵심은 농가 중심으로 한돈협회의 업무기능을 대폭 강화했다는 것이다. 이는 하태식 회장의 공약인 국민과 함께하는 한돈산업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농가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해 시너지를 극대화한다는 구상이다.

● 한돈자조금, 새해 첫날
● 한돈 떡국세트 나눔행사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하태식)는 2018년 무술년 새해를 맞아 국민과 함께 하는 해맞이 한돈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새해 첫날인 1일(월) 새벽 6시부터 서울 N타워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지난 한 해 한돈에 보내준 국민의 관심과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2018인분의 한돈 떡국 세트를 나누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특히 올해는 인근 상권과의 상생을 위해 현장에서 떡국을 나누는 시식회 대신 떡과 한돈장조림, 계란고명 등 한돈 떡국 세트를 제공하는 형태로 진행했다. 또한 해돋이를 기다리는 1만명의 등산객들을 위해 만사형통을 기원하는 박 터뜨리기 행사, 한도니 캐릭터 인형과 함께 해맞이 인증사진 찍기 등의 다양한 이벤트도 함께 마련했다. 특히 이벤트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한돈 선물세트와 손난로 등 푸짐한 경품도 제공해 기분 좋은 새해 첫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했다.



● 낙농육우협회, 어린이·청소년에게 충분한 우유섭취 적극 권장

우유 섭취량이 많을수록 어린이·청소년의 영양불량 및 칼슘부족섭취 위험을 낮춘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어린이·청소년의 우유 섭취에 대한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2017년도 우유 자조금사업의 일환으로 우리나라 어린이·청소년의 우유 섭취 변화 추이 및 우유 섭취와 건강과의 관련성 분석 연구(2017.11.29., 연구책임자 공주대학교 김선호 교수) 연구공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유 섭취량에 따른 영양소 섭취량이 우유를 마시지 않는 군에 비해 우유를 많이 마시는 군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우유 섭취가 어린이·청소년에게 칼슘을 비롯한 여러 영양소의 섭취를 향상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공주대학교 김선호 교수 연구팀이 어린이·청소년의 우유 섭취 변화 추이 및 우유 섭취와 건강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2007~2015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중 만 6~18세의 원시자료를 합쳐 데이터 셋 제작 및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한국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은 우유를 많이 섭취할수록 성장기 어린이·청소년의 영양 및 건강 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연구결과라며, 어린이·청소년에게 충분한 우유 섭취를 적극 권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우유자조금, 해외수출 확대 등 국내산 유제품 소비활성화

우유자조금은 올해 우유의 대발견 캠페인을 통한 다각적인 우유소비 방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인다. 우유와 공합이 맞는 식품을 찾아내는 한편 신규 소비 시장 개척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K-MILK, 치즈페스티벌 등과 같은 사업을 통해 국내산 유제품 소비 활성화에 기여하고 해외공동 마케팅 사업 추진을 통한 국내 우유수급 안정화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세포노화 억제 효과와 우유 다이어트라는 새로운 우유음용 효과 등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우유섭취가 근육생성 및 근육회복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우유섭취를 통한 치주질환 완화 유의성 관련 연구도 진행한다. 올해에는 도심 속 목장나들이를 비롯한 연속사업들과 함께 유제품 쿠폰 발행사업도 새롭게 시작한다.

올해 사업비는 총 113억 원 규모. 이중 농가 거출액은 40억원이며 정부지원금 51억6,700만원(거출금 보조 31억6,700만원, 해외수출마케팅 보조 20억원), 유가공협회지원금 20억원, 진흥회 지원금 3,965만원, 2017년도 이월금 8,626만2,000원 등으로 조성된다.



● 양계협회, AI 예방·방역의식 강화
● 장화갈아신기 캠페인

대한양계협회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산발적으로 지속 발생함에 따라 장화갈아신기 캠페인을 전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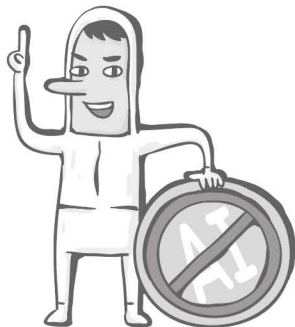
중계부화 농가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은 최근 조류인플루엔자가 산란계 농가에서도 발생, 확산 우려가 가중되면서 농장의 방역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협회는 소속 중계부화 회원농가 약 210호에 장화를 보급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캠페인을 통해 농장에선 계사별 전용 장화를 비치할 수 있게 돼 조류인플루엔자의 유입 및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홍재 양계협회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계사마다 장화갈아신기를 생활화해 차단방역에 심혈을 기울여 주길 당부한다”며 “올해는 평창동계올림픽이 개최되는 만큼 시특별방역대책기간에 농가의 차단방역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캠페인은 2013년에 추진한 바 있으며,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의 사업비로 진행된다.



● 계란자조금, 2018 사업규모 확정
● 40억5,000만원

2018년도 계란자조금의 사업예산은 2017년도보다 4억원 가량 증액된 40억5,000만원이 될 전망이다. 계란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남기훈)는 2017년 12월 17일 서울 서초동 소재 계란자조금 회의실에서 2017년 제6차 계란자조금 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날 심의된 예산안은 총 40억5,000만원으로 지난해 36억6,400여만원보다 3억9,000만원 늘었다. 정부의 거출률 상향 독려에 따라 올해 거출률은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이란 판단에서다.

계란자조금 사업예산안에 따르면 농가 거출금 27억9,000만원과 정부보조금 12억6,000만원으로 조성된다.

정보제공 및 교육, 홍보 등 교육 및 정보제공에 9억1,000만원, 광고홍보 및 홍보행사 등 소비홍보에 20억2,000만원, 수급안정에 5억원, 인건비 등 운영비에 2억7,000만원, 연구용역 및 실태조사 등 조사·연구에 2억3,000만원, 유통경쟁력 강화 등 유통구조 개선에 5,000만원, 기타비용 7,000만원 등으로 운용될 계획이다.

남기훈 위원장은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축산자조금에 속해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라며 “문제가 지속될시 해당 농가를 자조금법에 의거 소송까지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